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 도록 텍스트에서*

우혜수

2014

이세경(b.1973)은 2003년 초반부터 머리카락을 재료로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머리카락은 예부터 영혼과 물질이 합쳐지는 신성한 매개체 혹은 권력과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동서고금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작가는 머리카락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재료를 매개로 오늘날의 예술,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롭고 진지한 사유를 펼쳐 보인다. 특히 그는 머리카락에 담긴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특수성에 주목한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일부일 때는 아름다움, 건강, 젊음을 상징하는 외적 기준이지만, 신체에서 떨어져나오는 순간부터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작가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에 있는 이러한 머리카락의 상반된 속성, 그리고 극단적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찰나에 주목하여 다양한 작품에 활용한다.

이세경은 작품의 양가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머리카락이라는 재료가 작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숨기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는 도자기, 식기, 타일, 카펫 등 전통적인 수공예의 영역을 끌어들이 전통적인 채색이나 자수 장식 대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어나가는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이 섬세한 문양들을 재현해낸다. 이때 작가가 차용하는 장식 문양들은 독일의 마이센 도자 문양, 러시아 구성주의의 기하학적 도형,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의 전통 타일 패턴, 중국과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회화 이미지 등의 다양한 역사적 모티브이다. 이세경은 정교하게 장식된 작품들을 마치 박물관의 진귀한 유물처럼 전시함으로써 역사성과 예술성의 외형을 배가한다. 관람자들은 이러한 눈속임 장치들로 일차적으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섬세함에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작품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면 미처 완성되지 않은 장식의 끝부분에서 흘러 내리는 머리카락의 올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경탄은 의구심으로 변하고,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접시 위에 빼곡히 수놓인 머리카락이라는 보고도 믿기 싫은 사실은 우리 인식의 저변에 있던 이중적이고 모순된 판단기준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든다.

*p.194-196

이세경은 이렇게 상반된 정서의 공존이라는 예술적 전략을 통해 극단적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면서, 고귀함과 추함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관습적 편견을 재고해보게 하는 것이다.

작가는 도자기 작품 외에도 다양한 작업에서 머리카락을 둘러싼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문제들을 고찰해왔다. <전환_자화상(Transfer_Portrait)>(2012)은 서구에서 상품으로 취급되는 머리카락이 동양의 종교적 상징물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작된 사진 연작이다. 작가는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모 대부분이 인도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힌두교 사원에 바친 머리카락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변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전환의 지점을 기록하기 위해 금발 가발을 착용한 힌두교 여성의 머리가 점차 자신의 본래 머리색인 흑색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일련의 사진에 담았다. 즉, 인모의 유통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여 시각화함으로써 동시대 동양과 서양의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상기시킨 것이다.

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막대한 양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이세경의 <카펫>연작들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뿐 아니라 조형적 아름다움, 그리고 머리카락에 담긴 종교적인 의미까지 환기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힌두교 여성들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마음으로 흠바닥에 문양을 새겨나가는 데 착안하여 이 카펫 작업을 시작하였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로 거대한 카펫 위의 문양을 완성해나가는 장시간의 고된 노동은 마치 심신을 가다듬는 수련 혹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만의 종교적 제의와도 같은 행위가 된다. 그렇게 힘겹게 완성된 카펫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면서 머리카락을 둘러싼 부정적 편견을 초월하는 미적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카펫 위의 머리카락>(2014)은 조형적 미와 작가의 숙련된 기술이 절정을 이루는 대작이다. 이세경은 기획전시실의 진입로인 19미터에 달하는 램프 전체를 머리카락이 수놓인 카펫으로 뒤덮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이번 작품이 미적 관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실용성을 동시에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머리카락은 카펫의 표면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카펫 작업들이 단순히 머리카락을 흩뿌려놓거나 풀로 조심스럽게 붙여놓는 정도의 방식으로 문양을 표현했다면, 이 작업은 머리카락이 웬만한 쓸림과 밟힘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완벽히 심어져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이세경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노동을 반년이 넘게 지속해야 했다.

의미의 반전은 전시의 개막과 동시에 시작된다. 관람자들은 기획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하고 아름다운 카펫/작품에 경탄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그 수려한 문양에, 다음으로는 그것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수공으로 박아 넣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의 결과물임에, 그리고 머리카락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교한 눈속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람자들은 이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램프를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즉,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눈앞에 놓인 작품을 밟고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강요된 상황에서 조심조심 카펫/작품 위를 지나가는 동안 (섬세함에 대한)경탄, (머리카락을 밟아야 한다는)불쾌, (작품을 손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모순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다양한 물리적 교감과 이에 따른 미묘한 인식의 변화는 작품의 일부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나갈 것이다.